
“부주의와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4)

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50만여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질병이 아닌 불의의 사고, 폭력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 비율은 요즘 건강상의 큰 문제인 성인병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위해 이 “사고”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WHO는 올해 보건의 날 주제를 “부상”으로 선정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 나섰다. 본 내용은 WHO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아동학대

폭력행위의 범주-자살, 살인, 강간, 폭행, 학교내 집단폭력-안에서 아동학대는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록 1960년대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 아동학대와 무관심 예방 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에 의해 “학대 아동 증후군”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나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아직 매우 낮거나 미흡한 상태이다.

조사된 30개국 중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대중 인식이 벨리즈, 칠레,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

스탄, 남아프리카, 스웨덴, 튀니지에서 ‘낮다’고 판정되었고, 도미니카 공화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케냐, 스페인, 우루과이에서 “보통”으로 판정되었다.

성적인 학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국가의 자료에 근거를 두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성적인 학대가 널리 퍼져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미성년 시기에 여아의 20%, 남아의 7%가 한 번 이상, 주로 가족의 일원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네델란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자인 1/3이 미성년 시기에 성적으로 학대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동 학대는 자료의 부족과, 문제가 수 치감과 부인(否認)에 의해 숨겨지는 경향 때문에 감춰진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과거 경험에 의하면 학대받고 자란 아동은 후일 아동 학대자가 되기 쉽다고 한다.

□ 지역사회의 안전운동

상황 : 사고와 부상 예방에 대한 1차 국제 회의. 세계보건기구의 후원. 장소 : 스톡홀름.
시기 : 1989. 참가자 : 50개국의 약 500명 전문가. 이들은 이러한 배경 하에 모였다.

당시, 고의적이거나 사고에 의한 부상은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보건문제였고 자동차의 증가와 도시화로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사실상 모든 국가내에서 부상은 아동과 젊은이의 첫번째 사망원인이었다.



▲ 아동학대는 자료부족과, 수치심과 부인(否認)에 의해 숨겨진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고령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국가—가 부상방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었다. 정부에게 부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사업실시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란 어려운—그리고 많은 경우 아직까지도—일이었다.

스톡홀름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목적은 정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대중 스스로가 교육받고 자라하게 되면, 가정, 노상(路上), 직장에서 부상으로부터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즉, “안전한 생활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안전한 삶이 장수하는 생산적인 생애를 만든다”고 선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안전한 지역사회계획”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참여 : “지역사회의 능력을 적절히 집중시킨다면, 지역사회는 훌륭한 부상감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소외계층 : “격차를 줄이고...정부가 취약 집단을 위한 사고와 부상 예방에 대해 높은 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사적 부문 : “각종 기구와 법인에게 모

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진하며… 노동조합, 학술 기구, 종교 지도자 등이 모든 사람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기회를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

생산품의 안전성: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그리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게 위험한 생산품을 사용한다… 현대의 편리함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위험과 이익간에 균형을 취해야 한다…”

교육자: “교육 기관은 그들도 부상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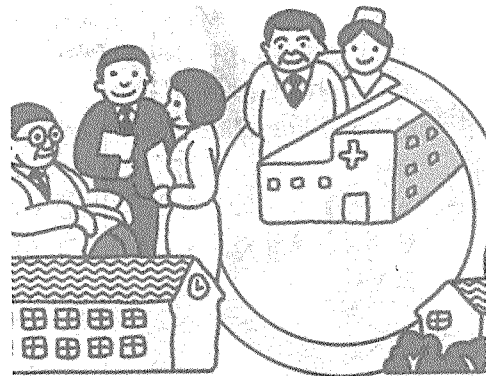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대중을 교육하고, 안전과 부상 관리에 대한 복잡한 정책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여기 안전한 지역사회의 실례를 각각의 주요 목적과 함께 제시한다.

아메리카 대륙

로스엔젤레스에서는 1992년 폭동의 배경하에서 모든 사회 계층-사업, 의약, 공중보건, 시민단체, 경찰-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합을 통해 폭력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산 페드로 술라에서는, 그 목적을 교통사고-특히 크리스마스 성주간과 기타 휴일동안-를 줄이는데 두고 있다.



▲ 지역사회의 능력을 적절히 집중시킨다면 훌륭한 부상감소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할 수 있다.

아시아

태국의 왕코이에서는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이 1차 보건의료의 일부분이다. 그 목적은 부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유럽

인구 약 32,000명이 거주하는 스웨덴의 폴코퐁(Folkpong)에서는, 주요 목적이 가정, 노상(路上), 직장에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한지 단2년만에 부상이 30% 감소했다고 한다.

인구 약 41,000명이 거주하는 스웨덴의 모탈라에서는, 5년 동안 예방을 통해 어린이의 부상을 13% 감소시켰다. (끝) ㉞